

# 순천시, 코로나19 숨은 일꾼 '역학조사반' 일상

### 의사 1·간호사 8명 역학조사반·경찰관 12명

### 확진자 첫 만남...동선 등 기본정보 파악해

순천시는 코로나19가 시작하는 2월부터 환자 발생시 9명(의사 1, 간호사 8)의 역학조사반과 경찰관 12명을 함께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 역학조사반은 확진자와 첫 만남으로 시작으로 시간과 동선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CCTV를 일일이 확인해 동선과 접촉자를 찾아내고,

환자발생 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이들은 순천시 확진자 68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무한구름 설명회를 다녀온 5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헬스장까지 이어지는 감염경로를 확정해 지금까지 밀집 접촉자 22,818명에게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하여 더 이상 지역 확산을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보건소에서 24시간 대기하며 환자발생 즉시 출동하는 역학조사반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확진자와 대화에서 하나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확진자 진술과 카드사용내역, CCTV자료를 비교분석하며 역학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피 마리는 시간은 계속된다.

특히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사회로 급속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수면과 휴식은 언급생심이다.

역학조사반에 참여한 순천시 보건소 박소영 팀장은 "확진자의 폭언, 스톱킹 등으로 힘들 때는 눈물이 나

기도 하지만 감염경로와 연관된 장소와 밀접 접촉자를 찾아 방역소독과 검사를 받게해 더 이상 지역으로 확산을 막았다고 생각하면 다시금 안정을 되찾아 간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확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대면에서 정확한 기본정보를 주는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반의 지시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4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검사를 22,818명이 실시했고, 68명의 확진자 중 63명이 치료



중이고 5명은 완치 판정 후 퇴원하였으며, 최근 확진자 12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발생함에 따라

1:1 전담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의 추억을 담다... '미디어 공모전' 개최

### UCC·사진·핸드폰 공모전... 오는 24일까지 접수

여수시와 여수밤바다불꽃축제위원회(위원장 이문봉)는 'Memories in Yeosu'를 주제로 '2020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미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미디어 공모전은 UCC와 사진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9월 5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수밤바다 불꽃축제의 불꽃 연화 장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여수의 풍경, 일상, 추억 등 여수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만든 창작품이어야 한다. 사진 공모전의 경우 전시 가능한 규격 사진(3,000pixel 이상) 외 핸드폰 사진도 별도로 응모 가능하다. 시상금은 UCC와 사진 공모전 각

각 ▲대상 1명 150만원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1명 60만원 ▲장려 1명 40만원 ▲佳作 5명 10만원이며, 시상금 외 여수관광상품권, 특산물 등의 부상이 준비되어 있다.

핸드폰 사진전은 가작 20명에게 여수시 특산물(10만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 홈페이지를(<http://www.yeosu.go.kr/yssf>) 참고하면 된다.

이문봉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여수 밤바다를 낭만으로 가득 채웠던 불꽃 축제의 추억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따뜻한 휴식을 드리려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특산물 홍보도 병행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운 기자

## 고흥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

### 오는 10일까지 모집...선정된 1개 작가팀 4억원 사업비 지원

고흥군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참여 작가팀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미술인 대표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며 대표자, 작가, 행정지원인력을 포함 37명 이상으

로 팀을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와 제안서, 작가자격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작가팀 선정은 사업의 이해도, 실행 가능성, 기획력 및 예술성, 예산적정성, 지역예술인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팀별 PT발표)가 진행된다.

선정된 1개의 작가팀에 4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보성군, 추석명절 고향방문 자제 당부

보성군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향우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향방문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군민들에게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지들의 초정을 미루고, 추석 선물 및 장보기도 지역 상가에서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석 명절 고향방문을 고민하고 있는 향우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명절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별초 대행 서비스 안내를 비롯해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을 홍보할 예정이다.

군은 명절 고향을 찾지 못한 향우들을 위해 '온라인 합동 차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안부를 전하기 위해 영상통화와 자원봉사단체에서 소의계층 등을 위해 차례음식을 나눌 계획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 여수시, 태풍 도복 피해 농가 '힘 보태'

### 대포리 남해촌마을 찾아 일손 돕기 추진



여수시가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도복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손 돕기를 추진해 농가에 힘을 보

탤다. 시에 따르면 4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소라면 대포리 남해촌마을을 찾아 수확기를 앞둔 벼의 도복 피해 최소화를 위해 0.6ha의 벼 세우기 일손 돕기를 추진했다.

이번 태풍으로 여수시는 소라대포 등 9개소에서 총 13.2ha의 벼가 쓰러졌다.

타 지역보다는 피해가 적은 편이나 수확기를 앞두고 벼 수확량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조기 복구토록 농가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에서는 '농촌일손돕기 지원장구'를 연중 운영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하는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운 기자

## 광양시, 친환경농산물선별장 설치

### 다압면 신원리 1,690㎡ 5억 원 투입



광양시는 전라남도 '2021년 친환경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지원' 공모에 선정돼 광양원예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선별장과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다압면 신원리 1122 부지(1,690㎡)에 사업비 5억 원(도비 105, 시비 245, 원예농협 150)을 투입해 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장(348

㎡)과 저온저장고(66㎡) 시설을 갖춘 대규모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역 모든 농산물의 선별·유통 작업을 광양시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처리하여, 매실과 양상추의 주산지인 진월·다압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다압면에 친환경농산물 공동선별시설이 설치되면 농산물 수집시간과 인건비가 절감돼 농가 생산성이 향상되며, 연간 900톤의 친환경농산물을 소포장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연간 30억 원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력

코로나19 예방 극복해!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심2지구 상가 상인회

